

KICEM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소개



강신영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장

### 해외건설산업의 성장

올해로 진출 50년을 맞이한 우리 해외건설은 작년 한 해 수주액 6,000억불 달성과 2년 연속 연간수주 600억불 돌파 기록을 세운데 이어, 연초부터 컨소시엄 형태의 수주활동을 통해 순조로운 성장항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특히 2011년(591억불)을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거의 매년 600억불 이상을 수주, 연평균 652억불을 수주하며 원만한 성장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571억불), 자동차(487억불), 조선(359억불)산업의 수출액과 비교해보더라도 해외건설의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위상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해외건설 현장의 직접 고용인원은 2008년 9,637명에서 2013년에는 2만 3,744명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기자재 및 장비수출, 해운, 항공 등 연관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75%에서 2013년에는 5.00%로 높아졌다. 때문에 장기침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건설과는 달리 해외건설에 대한 기업과 국민, 정부의 기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건설전문지 ENR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2008년 2.9%의 세계건설시장 점유율로 13위에 머물던 우리나라 해외건설 순위도 2012년에는 점유율 8.1%로 세계 6위를 차지하며 이미 해외건설 6대 강국에 진입할 정도로 우리나라 해외건설 산업은 이미 국내외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출범

이렇듯 해외건설산업의 외형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레 해외건설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Think-Tank 기관은 국내에 전무한 형편이었다. 국내건설 분야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산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정책 아이디어가 생산되고 있지만, 해외건설 분야는 1976년 설립된 해외건설협회를 통한 창구가 유일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프로젝트 관리능력과 같은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채 외형이 단기간에 급성장함에 따라 공사 관리와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작년말부터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적악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지원과 해외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건설 정책수립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 9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2013년 7월 동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 후 12월 정부 승인을 거쳐 올 2월 25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되었다.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해외건설 시장 전반과 주요국의 건

설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외건설 정책의 개발과 제도개선 효과의 실효성을 높여 우리업체들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출범 초기 센터 설립 및 정비 작업이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해외건설 시장 및 공중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컨설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시급한 현안과 중점 연구과제 위주로 10여편에 이르는 심층 연구보고서를 1차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륜이 깊은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를 정례화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해외건설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점검,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활성화함으로써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유기성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한층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해외건설 내실화 방안 세미나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되었다.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비전

기본적으로 동 센터의 존재 목적은 해외건설의 지속 성장과 진흥에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수준을 높이는데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수주 1천억불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층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자연스럽게 뒤따를 해외건설 5대 강국 지위를 영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건설 유망 신상품 발굴에 매진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 조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여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해외건설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정책개발과

연구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협업과 융합을 이끌어내어 해외건설의 미래가치를 창출해나가는 창조적인 전문 연구기관에 방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출범 및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와의 연계

국토교통부 훈령 제342호에 따르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및 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센터는 해외건설 관련센터로 묶여 연계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내 해외건설 관련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관련센터의 세부 추진계획들이 운영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현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센터는 동 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중소기업 해외건설 진출 지원 및 경쟁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상기 3개의 해외건설 관련센터 중 가장 빠른 2006년 4월 5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크게 중소 해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지원, 진출 컨설팅 및 정보망 구축사업으로 구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훈련지원은 해외건설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공정관리, 계약 및 클레임 관리, 타당성 분석, 금융조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 등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실습 위주의 집중 심화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해외진출 컨설팅은 중소형 산업플랜트 특성화 진출지원과 맞춤형 방문 교육, 해외건설 전문가 상담 및 해외진출 협의회와 다양한 설명회 개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 센터는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내실있는 해외건설 정보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올해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기초 실무 과정, 공정관리 기초과정 등의 초급과정 4회, 타당성 분석 실무과정, 금융 실무과정, 엔지니어링 실무과정과 같은 중급과정 6회 및 계약관리 실무 집중과정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과정 등의 고급과정 3회 운영 등 총 13회에 걸친 해외건설 전문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한 중소형 산업플랜트 특성화 진출지원, 맞춤형 방문 교육지원과 함께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수를 70명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거주 전문가 3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별도 추가 위촉하여 중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건설업체간 자발적 협력 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의회 및 지방 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진출정보 제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각 센터의 유기적 통합

해외건설산업의 외형 성장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정책 지원과 이에 따른 유관기관의 해외건설 지원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외건설 산업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는 정보, 인력, 금융 분야의 경쟁력 배양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이러한 경쟁력 확보가 개별 건설업체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달성될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해외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건설 업계와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들의 융합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및 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센터와 같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와 함께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산하 다양한 해외건설 연관 센터들의 활발한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외건설에 대한 융합의 움직임과 지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역시 해외건설 전문 Think-Tank 기관으로서 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건전한 해외건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